한국문학논총 제 26 집(2000.6) pp. 589~613

한국 문학에 나타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연구*

-「아리랑」,「태백산맥」,「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중심으로-

이 해 년**

차 례

Ⅰ.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한국문학의 민족주의 경향
Ⅱ.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Ⅱ-1. 작가의식
가. 민족주의
나. 제목과 체재 선택 문제
다. 투철한 역사인식
Ⅱ-2. 서사구조
가. 근대적 의미소와 이분법적 사고
나. 근대적 서사구조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실현
Ⅱ-3. 주체의식
가. 근대성 극복으로서의 역사 다시 쓰기와 역사 다시 읽기
나. 민족정체성 확립과 역사읽기
Ⅲ.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작품의 의의와 한국문학의 전망

Ⅰ.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한국문학의 민족주의 경향

수세기에 걸쳐서 지속된 식민지적 근대성으로부터 벗어나 포스트콜로니얼한 문학담론으로 이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위한 현실적 전략은, 문학적 자생력이 강조된, 생산성이 강한 것이어야 한다. 피

* 이 논문은 1998학년도 동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동서대학교 외국어학부 국어국문전공 조교수

해자 의식을 벗어나 '우리 것을 다시 보는 눈을 갖는' 포스트콜로니얼한 자각이 우선 되어야 한다.즉 우선 우리사회와 우리 문학담론 속에 내재한 식민성을 인식해야 하고, 질곡의 역사와 기억 속의 파편까지도 거슬러가 다시 읽고 다시 쓰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주변화/타자화된 과정을 비판하고 고발해야 한다.[1] 그래야만 중심부/지배화된 문학적 담론에서 벗어나, 우리 문학의 자생력과 정체성을 길러낼 수 있다.

자칫 식민지 이전의 자국문화와 언어로 회귀하려는 '전통에의 회귀'나 자민족중심주의적인 '감상적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와 닮아 있어, 포스트콜리니얼한 문학담론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운동은 생활세계의 식민화 현상을 극복하려는 운동이며, 새롭게 재편되는 시대에 자기 정체성을 좀더 시대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표명이다.

본 연구는 지구촌 곳곳에서 포스트콜로니얼한 문학담론에의 욕구가 커지고, 민족정체성확립에의 노력이 확대되는 점에 관련하여, 일제시대와 광복공간, 6.25사변과 남북분단체험의 직접적 피해자였던 우리문학담론에 나타난 포스트콜리니얼리즘 경향을 분석하여, 그를 통한 민족정체성 확립의 양상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문학담론에 새롭게 부각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경향은 최근 몇 년간 출간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1993), <태백산맥>(1993)과 <아리랑> (1994) 등의 장편소설 또는 역사대하소설류의 열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핵자주화를 통한 정치적 민족자주성의 확립과, 역사 다시 읽기 또는 역사 다시 쓰기를 통한 민족정체성의 확립 및 식민적 근대성과 민족분단의 극복 등이 그것이다.

최근 이들 작품을 다각도로 조명한 비평서 「아리랑 연구」(1996)와 「태백산맥 다시 읽기」(1996)들이 출간되었으나, 이 작품들을 정작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없어, 전 지구촌의 포스트콜로니얼한 문학담론의 경향과 결부시키는 거시적 안목이 요구되는 때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과 이와 관련된 패미니즘 문학, 페로디 문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고, 1970년대 이후 민족주의 문학론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어 왔으나 한동안 정체되었으며, 정작 포스트콜로니얼한 문학담론적 시각의 연구는 거의 없었다. 여기에 본 문학연구의 비평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

1) 조혜정 ;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2). P.35.

본 연구는 우선 이 세 작품이 수세기에 걸쳐 지속된 식민지적 근대성과 민족분단으로부터 벗어나 포스트콜로니얼한 문학담론으로 이행하는 전형적인 노정을 보이는 작품임을 밝히려 한다. 즉,. 이들 작품은 우리사회와 문학담론 속에 내재한 식민지성을 인식하고, 질곡의 역사를 거슬러가서 다시 읽고 다시 쓰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서구제국주의에 의해 주변화/타자화된 과정을 비판, 고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시 중심부/지배화된 문학담론에서 벗어나 우리 문학의 자생력과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세 작품의 포스트콜로니얼한 특징으로, 서구제국주의의 편견인 자유/종속, 가진자/못가진자, 가해자/피해자 중심부/주변부, 자기화/타자화 등의 이분법적 사고가 전체 서사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국가간 또는 남북간, 계급간의 노동, 지식, 소유, 권력의 근대적 의미소를 통해, 식민지적 근대성과 민족분단의 극복, 민족정체성과 민족자주성의 확립이라는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의식으로 확대시켜가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작품의 공통적 특징으로서 민족주의에 입각한 작가의식이 역사 다시 읽기와 역사 다시 쓰기를 통해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의식에 천착하려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이들 세 작품을 우리문단에서 시도된 포스트콜로니얼 문학담론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이 작품의 민족정체성 확립의 양상과 전망을 살펴, 포스트콜로니얼한 문학담론 시대에, 지구촌의 자생력 있는 하나의 지방장로로 우리 문학담론이 우뚝 설 가능성과 역량까지도 밝히려 한다.

Ⅱ.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본 연구는 최근 몇 년간 출간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아리랑><태백산맥>, 세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문학 담론으로서의 특성과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에서 밝히려 한다.

이 세 작품은 첫째 모두 투철한 민족주의 우선의 작가의식과 역사인식에 바탕하여 쓰여졌으며, 둘째 근대적인 의미소와 이분법적 서사구조를 통하여 근대성을 극복하고 확산되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째 철저한 역사 다

시 읽기와 역사 다시 쓰기를 통하여 민족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주제의식을 실현함으로써, 불우하고 우울했던 근대사를 넘어 포스트콜로니얼한 문학담론으로 우뚝 자리매김하였음을 밝히려 하는 것이다.

Ⅱ-1. 작가의식

가. 민족주의

이들 세 작품의 창작의도가 모두 작가의 철저한 민족주의 정신에서 출발하였음을 작가의 말이나 작품 속의 등장인물을 통해 강하게 드러난다.

김진명의 경우, 강대국에 의해 굴욕적인 비핵화선언을 해야 하는 한반도의 운명에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민족자존과 민족 정체성의 확립이 시급함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 …… 마침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비핵화 선언' 이 강대국의 강권에 의해 발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랏님들의 발상은 펜타곤의 발표를 복사해 읽어주는 듯하다. **절망이었다. 분노를 넘어 차라리 침묵해야만 했다.**
> **이것이 진정한 한반도의 숙명이란 말인가?**
> 그러나 헤어날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에 침묵하고 있던 내게 어느날 구원과도 같이 희미한 기억하나가 어깨를 짚어 왔다.
> 이휘소! 바로 그였다. 개인의 최고 명예랄 수 있는 노벨상마저 포기하고 조국의 핵개발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채 귀국했던 천재 물리학자……(중략) 나는 이 박사의 삶과 죽음을 **한반도의 국민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책임감 앞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것은 결코 과거의 '지난 이야기'쯤으로 치부해 던져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
> (『부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작가의 말)

이러한 민족자존을 위한 민족주의 의식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에 대한 불신과 핵무장을 통한 국토방위, 북한에 대한 포용 필요성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핵개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주인공 권순범의 목소리를 통해 강하게 제시된다.

>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 국방을 의존하는 대가로 수많은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리의 적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요, 우리 자신의 의식입니다.** ……

우리는 **진정한 우리 민족의 길을 찾아 나가야만** 합니다. 이 길은 미국이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찾아나가야 하는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중략)

각하, 진정한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일은 대통령께서 결심하지 못하면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심해 주십시오, **진정한 민족의 길을 가시겠다고 결심해 주십시오**……(중략)

……우리가 어째서 북한을 미국과 일본의 시각대로만 봐야 합니까? 물론 북한은 현재 우리의 가장 확실한 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위험에 철두철미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은 우리가 안아야만 하는 형제입니다** ……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권1, PP. 276~277)

조정래의 경우도 <태백산맥>과 <아리랑>의 창작의도가 철저한 민족주의 우선원칙에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의 **분단 역사는 해방 이후의 역사만 왜곡하고 암장시킨 것이 아니라 식민지시대의 역사까지도 그렇게 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제 살 깎아내기엔 그 어리석음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를 것이 없었다. 그 우매한 짓으로 **민족정기는 소멸되어 가고, 민족정신은 혼탁해졌으며, 민족자존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언제인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가서 민족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분단대립의 편파성은 어떻게 평가될까……(중략)

만년의 민족사 속에서 분단대립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조국은 영원히 민족의 것이지 무슨무슨 주의자들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 식민지역사 속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피흘린 모든 사람들의 공은 공정하게 평가되고 공평하게 대접되어 **민족통일이 성취해 낸 통일조국 앞에 겸손하게 바쳐지는 것**으로 족하다. 나는 이런 결론을 앞에 두고 소설 <아리랑>을 쓰기 시작했다. 그건 간히 **민족통일의 역사 위에서 식민지시대의 민족 수난과 투쟁을 직시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

(『아리랑』 1부, 작가의 말)

……**분단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굳이 그것을 쓰고자 함에 대하여, 무엇을 쓰느냐에 대하여,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은 무성했다. 그 질문에 대한 **일부분의 대답이 바로** 사천오백 매인 것이다.

(『태백산맥』 1부, 작가의 말)

……**우리는 민족주의**를 '시대착오적인 촌스러움'이거나, '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쇼비니즘'이라고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거침없이 매도해대는 육·칠십년대를 살아왔다. **인류라는 미명을 내세운 그 강대국논리에 편승한 이땅의 지식인들이 범한 무책임한 행위가 오늘의 현실에서도 저질러지고 있음을 우리는 묵과해서도 안되고, 용납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런 부류들로 인하여 **분단사는 다시 왜곡되고, 통일은 저해당하고 있음을 우리**

는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더불어 깨어날 때 역사의 힘은 창출되며, 그 힘으로 역사의 모순과 왜곡은 청소된다. 그 청소작업이 곧 민족통일의 길이다. ……
(『태백산맥』 3부, 작가의 말)

이처럼 조정래는 두 작품을 통해 전통사회의 붕괴과정과 식민지 시대로 다시 민족해방과 민족분단, 6·25의 격동기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파헤치면서도, 그 속에 살아 있는 민족의 정기, 수난극복의 의지를 파헤치려 했다. 이 두 작품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분단의 극복과 민족주의에 있다면,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려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담론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아리랑>에는 일제 식민통치의 역사를 탄압의 힘에 못지않은 반작용으로서의 저항의 역사로 보는 관점과 우리 민족의 끈질긴 투쟁정신을 재조명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조정래는 저항정신과 민족주의 이념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 소설을 썼다. <아리랑>은 민족주의의 새 교과서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작가가 의도한 것은 민족주의였다. <아리랑>의 정신적 바탕이 민족주의에 있음은 여러 곳에서 또 여러 요소를 통해서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의 애환이 극에 달하면 '함께 아리랑을 부른다'는 모티프가 가장 구체적이고 튼튼한 근거가 된다.[2)]

나. 제목과 제재 선택 문제

두 작가의 투철한 민족주의는 작품의 제목과 소제목 및 제재 선택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세 작품의 제목이 모두 민족주의 내지 민족정체성과 한민족의 민족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아리랑>, <태백산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제목들도 모두 민족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사건

2) 조남현 ; 소설을 통한 역사와 민족의 새 독법, 『아리랑 연구』, P.39.
<아리랑>전편을 통해서 이러한 모티프는 공간적 배경을 달리하면서 여러 차례 설정되고 있고, 일본, 중국, 만주, 소련, 하와이 등 세계곳곳에서 우리 민족이 수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아리랑은 함께 부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동질감과 정체성(identity)을 확인할 수 있는 방편이었다. 국내에서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족 개개인의 독립의지를 드러내는 방편이었고, 국외에서는 민족의 결속을 재확인하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한 도구였다.

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제목만으로도 민족사의 파노라마를 읽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아리랑>의 경우, 작가의 의도가 민족주의에 있음도 제목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아리랑은 가사와 가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신명을 불러일으키고, 신분의 고하와 빈부의 차이를 잊게 하여 일체감을 형성하는 매력을 가진 노래이며 시대를 뛰어넘는 민족의 노래이다. 게다가 민요 아리랑은 한말에서 일제 암흑기를 통하여 이 겨레의 비분을 표백한 내용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애창했던 노래라는 것과 불린 지역의 광범위함을 상기하면, <아리랑>이라는 제목이 포괄하는 범위가 시간적으로는 구한말에서 일제 치하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일백몇십 년이고, 공간적으로는 조선땅을 비롯해서 만주, 연해주, 소련의 중근동, 일본, 하와이, 미주,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에 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로 웅대한 숨겨진 뜻이 소설의 제목에서부터 담겨있는 것이다.[3]

또 작품제목 <태백산맥 >은 우리민족의 분단의 역사를 상징한다. 조정래는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수난과 아픔을 씀으로써 '민족분단의 허리잇기'인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민족사에 작은 디딤돌이나 징검다리가 되려했다고 밝힌다.

> 민족 분단의 삶을 날줄과 씨줄로 엮어 민중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고자 하는 베짜기 작업이 어떻게 종합되고 통일을 이루어, **잘려진 태백산맥의 허리를 잇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나도 잘 모른다. 그 짐을 나는 지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허리잇기'염원이 언제인가는 성취될 것을 믿으며**. ……
>
> (『태백산맥』, 1부, 작가의 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경우 무궁화는 198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감행하려 했던 지하 핵실험을 상징하는 명칭이다. 주변강대국의 감시, 특히 미국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인도에서 몰래 플루토늄을 들여왔고 지하 핵실험을 하려 했다. 비록 핵개발 완료직전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하고, 계획은 묻혀버렸지만 민족자존을 추구하는 작가 김진명의 집요한 민족주의 의지는 작품상에서 결국 '무궁화 꽃을 피'우고야 만다.

> **핵폭탄의 공습경보가 발효된 일본 전역에서는 사상초유의 대혼란이 일어났다.**(중략) 고통과 신음에 가득 찬 일본 하늘을 뚫고 날아온 검은 물

3) 조정래 ; 『아리랑』 제2권, P.193.
전영태 ; 아리랑노래로 읽어보는 아리랑, 『아리랑연구』. P.193.

체는 일본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던 **대공방위망을 유유히 뚫고** 일본 내륙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동경으로부터 정남방 백 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무인도 미쿠라지마에 정확히 명중하였다.**

태평양 상의 한 작은 섬인 미쿠라지마에..... 정확히 명중한 한 개의 핵탄두가 만약에 일본의 심장부 동경을 겨냥하였더라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 하는 탄식이 일본인들을 사로잡았다.

헤아릴 길 없는 고통과 슬픔을 마음속에 깊이 묻은 채 원수의 심장을 비껴 겨드랑이 밑에 비수를 찔러 넣은 한국인들의 깊은 속을 일본인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권 3, 거룩한 용서, PP.280~281)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을 설득[4]하여 남북핵합작을 성공시키고, 1999년(작품 창작시기에서 보면 가상적 미래시간) 한국을 공습한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여 굴복시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끈기를 상징하는 나라꽃인 '무궁화'는 강대국의 감시와 억압을 뚫고 민족자존과 자립을 지키는 핵개발의 상징적 명칭으로 채택되어,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의식을 실현한다. 또한민족 역사를 통해 잦은 침략으로 가장 큰 시련을 주었던 일본을 응징하는 민족차원의 한풀이이며,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구현이다.

이들 세 작품은 소제목 명칭이나 제재 선택에 있어서도 철저한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실현한다.

실제 있었던 민족차원의 역사적 사건을 실명까지 써서 다양한 각도에서 광

---

4) 「……박대통령과 이 박사는 이 플루토늄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만들어 1980년 8월 15일 지하핵실험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는 미국 CIA의 사주를 받은 한국인들에 의하여 교통하고를 가장하여 살해당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체 금지시키고 이 박사가 이루어놓은 실적을 토대로 핵개발 완료직전 김재규 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권2, 플루토늄의 행방, P.273.)

「……주석님, 지금의 입장으로는 남이든 북이든 독자적으로는 핵폭탄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기술적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의 미일중소라는 강대국의 감시를 벗어날 수 없고, 핵사찰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핵무기 제조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여러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축적이 서로간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일을 나누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플루토늄 팔십 킬로그램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져와 제조하면 불과 육 개월 혹은 일 년 안에 핵개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권3, 동토의 살아있는 신, P.67.)

범위하게 다루고, 이 때문에 사실성(reality)을 더하여 소설 속의 허구적 사실을 오히려 실제 역사로 혼돈시키기까지 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경우 리얼리티를 더하기 위해 실존인물을 상당수 등장시키고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뼈대로 삼았다.[5] 이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후에 떠돌던 배후에 대한 후문이 작품 속에서 실제 사실로 독자에게 인식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미심쩍은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기도 했다.

김진명은 민족적인 현안이 된 6공의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다루면서, 한반도 안전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해 온 강대국의 입장을 국제 정세 전문가처럼 면밀히 분석해 간다. 미국에 대해서는 냉전체제 붕괴 후의 전세계적 영토분쟁과 미국의 국제적 지위 변화와 불간섭주의 등을 다룬다.(제 3권,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PP.203~214) 일본에 대해서는 식민지 시절 정신대 문제와 731부대의 마루타문제(제3권, 살인교향곡, PP.27~58), 한국문화재약탈문제를 다루고, 최근의 김현희·이은혜 사건과 북·일 수교문제의 관련성 및 일본우익정치세력과 야쿠자 조직의 자금이 남한의 경마장, 도박, 마약과 관광, 유통업에까지 뻗쳐있는 현실을 다루면서(제1권, 위험한 자금, 도쿄 오퍼레이션, PP.59~92), 일본은 우리 민족의 오랜 침략자, 가해자이면서 약탈자라는 시각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김진명은 한반도 안보의 현실적인 위험을 부각시키고 경제, 안보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민족자존의 길을 제시하여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실현한다. 집중적으로 남북 핵합작과 민족차원의 대북한 포용문제를 다루고(제2권, 대통령의 각서, 남북핵합작, 플루토늄의 행방, PP.255~285), 결국 미래의 가상적인 국방부 시나리오 속에서 일본의 독도침공과 한국의 대응 및 한·일간 시베리아 개발권 경쟁 문제를 다룸으로써(제3권, 국방부시나리오, 일본의 내각회의, 독도침공, 한국의 대응, 일본재벌의 음모, PP.165~274), 오랜 가해자였던 일본을 응징하고 민족자존심을 경제와 국방 면에서 모두 회복시킨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과거 역사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현실적 정세와

5) 「……작품 속에는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욕심으로 실존인물을 상당수 등장시켰다.** 그러나 작품의 뼈대가 되는 사실을 제외한 내용의 세부사항들은 소설적인 픽션에 해당함을 미리 밝혀둔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작가의 말)

현안을 다루고, 우리 민족의 열망까지를 모두 수렴하여 민족자존의 미래전망까지 제시한 생생한 역사교과서라 할 것이다.

조정래의 경우 <태백산맥>제4부 전 10권에서 해방 이후 6.25 사변과 휴전까지 정세변환의 순간순간을 다루면서도 그동안 냉전이데올로기 때문에 묻혀왔던 이면의 진실을 드러내려고 했다. 토벌대, 계엄군주둔, 빨치산 등의 소제목 만으로도 굵직한 역사적 사건의 추이를 읽을 수 있으며, 투철한 그의 민족주의를 읽을 수 있다.[6]

또 조정래는 '나라가 공산당 뱅글고 지주가 빨갱이 맹근당께요(제1부, 6)'처럼 특별히 길고 토속적인 문장의 소제목을 써서,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허망한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에 희생당한 한반도의 역사와 억울한 민중의 진실을 시원하게 꼬집어 냄으로써,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의식을 실현한다.[7]

<아리랑>은 전체 4부 전 12권의 대하역사소설로서 한일합방직전에서 8.15해방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아, 한반도, 민족혼, 어둠의 산하, 동트는 광야'라는 각 부의 제목들만 보아도 작가의 민족주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비록 일제와 허망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꺼져가는 한반도의 운명이 시작되지만, 온 민족이 합심하여 철저하게 끝까지 맞서서 광복을 맞는 과정의 역사적 사건들을 조명하고, 그 저력으로 '민족혼'이 살아있음을 부각시킴으로써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를 실현한다.[8]

---

6) 이밖에 <제1부> 토벌대, 계엄군주둔, 국토양단, <제2부> 빨갱이, 좌익분자, 용공행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습격, 자유민주주의, <제3부> 2대 국회의원 선거, 1950년 6월 25일. 사회주의 리얼리즘. 무상몰수, 무상분배, <제4부> 백두산 천지, 한라산 백록담. 1951년 1월 4일. 빨치산 휴전회담. 반공세력, 포로의 섬, 거제도, 휴전선으로 변한 삼팔선 등이 그것이다.

7) <제1부>의 13. 냉정한 비판을 생리로 가진 역사의 정체는 두엇인가, 27. 우리의 국토를 양단시킴으로써 민족을 분열시키어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려한다, 28. 아부지는 얼굴도 몸도 뻘건 디는 하나또 없는디 워째 아부지보고 빨갱이라고 헐까? <제3부>의 24. 냄편이고 아덜이고 열씩이라또 못 당허것다. 요런 징글징글헌 눔에 시상! 27. 똥냄새, 김치냄새의 나라, <제4부>의 2. 아시아인은 미국인과 동등하지 않다. 아시아인은 인간이 아니며 인간 이하의 존재다, 7. 빨치산, 그 이름없는 사람들의 진정성 등에서 알 수 있다.

8) 제 1부 '아, 한반도'에서는 통감부 설치 1년 전인 1904년부터 한일합방까지의 과정으로, 일진회, 동학, 의병 제1차 한일협약, 한일합방, 하와이 등을 주된 제재로 다루고, 제2부 '민족혼'에서는 토지조사 실시와 3.1운동과 독립투쟁 등을 주로 다룬다. 제3부 '어둠의 산하'에서는 만주사변(1920년)부터 관동대지진, 공산주의 운동의 전개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들을 부각시키고, 제4부 '동트는 광야'에서는

이렇듯 이들 세 작품의 소제목이나 제재들은 작가의 철저한 민족주의에 의하여 선택되었고, 어떠한 역사적 시련도 치열하게 항거하여 극복하는 '민족혼'을 보여주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실현이다.

다. 투철한 역사인식

작가의 투철한 민주주의는 투철한 역사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며, 나아가 투철한 역사가로서, 역사 다시 읽기 또는 역사 다시 쓰기라는 포스트콜로니얼한 실천행위로 이어진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뚜렷한 민족정체성 확립이 요구되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시대에, 과거 식민지 역사와 분단 현실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만이 아니다. 미래의 설계가 또한 역사다. 우리는 자칫 식민지시대를 전설적으로 멀리 느끼거나 피상적으로 방치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그러나 **민족분단의 비극이 바로 식민지시대의 결과라는 사실을 명백히 깨닫는다면 그 시대의 역사를 왜 바르게 알아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 (『아리랑』, 제 1부, 작가의 말)

조정래는 도대체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주었는가를 역사학자 못지 않은 치밀한 과거탐색을 통해 알리기 위해 <아리랑>을 썼는가 하면, 이렇듯 과거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올바른 방향감각이 현재통찰과 미래모색에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나는 <아리랑>을 왜 쓰며, 무엇을 쓰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그건 한마디로 줄이면, 분단대립으로 반도막나고, 또 친일파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차단시키고 망각을 조장한 **식민지시대의 역사를 구체적이며 총체적으로 바로 알고, 우리 모두가 식민지시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굴복감과 패배감, 수치심을 진실한 역사사실들을 통해 우리의 식민지 시대는 저항과 투쟁과 승리의 역사였음을 확인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상실되어 있는 **민족적 긍지심,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 (제12권, 「글감옥에서 가출옥」)

객관적 자료수집을 위해 지구를 세 바퀴 이상 돌면서 취재하였던 열정[9]이

재만 조선독립군 토벌작전을 중심으로 일장기 말소사건과 조선족 중앙아시아 이주령, 진주만 폭격, 정신대와 강제 징용, 1945년 광복 등의 역사적 사건들이 제재로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구현한다.

9)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게 된 어지러운 상황이 시작되면서부터 세계 여러 나라로 떠돌아야 했다. 나는 그 자취를 일일이 찾아다녔다. 중국, 일본, 미국, 러

나, 곳곳에서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등[10] 정확한 역사자료를 남기려는 노력은 작가라기 보다 오히려 참 역사가의 면모이다. 또, 지금만큼 자유롭지 못했던 작품 출간 당시에 좌익세력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표명할 대담한 용기나, 일제의 식민사관과 해방 후 지속된 반공논리에 길들여진 우리네 실정을 떨치고 일어나서, 식민지 역사나 친일파 문제를 강하게 내세운 용기는 모두 민족주의에 입각한 투철한 작가의 역사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 만큼, <아리랑>이 다루는 시간대는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기 1년 전인 1904년부터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1945년까지 41년간에 걸쳐 있고, 그 무대는 한반도와 일본, 중국, 러시아, 하와이, 미국 본토, 동남아시아 등 전세계의 절반 이상에 뻗쳐 있는 거대한 안목과 열정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조정래의 작품창작의도는 결국 분단극복이요 민족통일이다. 조정래는 <태백산맥>과 <아리랑>을 씀으로써 역사에의 신뢰를 가지고 역사 속의 올곧은 진리를 발견하려 했다.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수난과 아픔을 씀으로써 '민족분단의 허리잇기'인 통일을 앞당기려했다.

> 역사는 '힘있는 자들의 기록'이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의 분단된 삶, 통일을 찾아가야 하는 우리의 민족적 삶에 있어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역사의 그런 허위가 파괴되고, 역사가 '자각하는 민중의 소유'가 될 때 비로소 우리 민족의 '허리잇기'인 통일도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그 중간과정에 문학이 해내야 할 몫이 있다고 확신하며, 나는 소설로써 그 일을 이루어보려고 욕심부리는 것이다.
> (『태백산맥』, 2부, 작가의 말)

김진명의 경우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통해 투철한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결국 김진명의 작품창작의도도 분단극복이요 민족통일이다.

비핵화 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압력과 국제정세 변화의 판도를 비판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읽어내고, 그에 따라 남북 핵합작 사업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자존의 길을 추구한다.

시아, 동남아 일대, 그 지역들은 자그마치 지구의 절반에 이르렀다.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들이 전부 <아리랑>의 무대가 되었다.

10) ……에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발생한 단세포등에 가담한 조센징들의 수는 총 2백여만 명, 그 중에서 사망자 7천5백여 명. 부상자 1만 6천여 명, 체포 7만 4천여 명이오. 그리고 가담자 2백여만 명 중에서 계층별·직업별로 구분한 결과는 농민이 제일 많아 56빠센토, 노동자가 제일 적어 3빠센토, 나머지는 학생 20빠센토, 지식인 21빠센토로 되어 있고…… (『아리랑』, 제 6권, P.206)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의식은 작가의 투철한 역사 인식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주인공 권순범이 대통령에게 핵개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장면을 통해서, 또는 안기부장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설득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 지구상의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사면이 초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영세 중립으로 나가야만이 강대국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각하, 우리에게 **강요되는 강대국의 논리를 깨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백년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중략)
>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면서 근세의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매한 존재였던가 하고 한탄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조상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 2권, PP.276~277)

> 주석님, **남과 북은** 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통일을 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소망이요, 염원입니다.** 이것은 남북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 후의 한반도 안보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중략)
>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나면 우리 민족은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등 세계 최강국들에 의해 둘러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운명은 마치 서커스의 줄타기 연기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불과 한 세기 전에 우리 민족이 당했던 역사적 상황이 그대로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 3권, P.68)

또한, 주인공 권순범이 통일의 그날, 조국 한반도에 울려퍼지는 한 민족의 함성을 듣는 장면을 상상하는 작품의 끝부분에서, 민족통일과 민족자존, 민족정체성의 확립을 열망하는 작가의 포스트콜로니얼한 역사의식은 극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 생각하면 얼마나 기구하고 가혹한 역사였던가? 이렇게 서술해보고 저렇게 해석해봐도 **고난과 비애만이 가득 찬 비통한 우리의 역사가 아닌가?** 한번도 남을 침략하지 않고 양순하고 선량하게만 살아왔던 우리 겨레이건만 우리는 어째서 주변 이민족들이 씌우는 온갖 속박과 굴레를 써와야만 했던가?
> 그러나 순범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비상하는 조국 한반도**를 보았다. **백두산이 흔들리고 한라산이 울어대는 통일의 새로운 날을 감연히 열어나가는 칠천만 한민족의 함성**을 들을 수 있었다. 눈을 가리는 **왜곡된 논리의 안경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민족의 길을 찾아나가는 용기**만 가지면 한민족은 북반구의 한 자리에 훌륭하게 자리잡고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거듭 다짐하는 순범의 망막에 희미한 모습이 떠오르더니 점차 선명해지며 가까이 다가왔다.
>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 3권, 끝부분, P.282)

이렇듯 세 작가의 민족주의에 입각한 투철한 역사인식은 역사 다시 읽기 또는 역사 다시 쓰기의 과정을 통하여 과거 식민지 역사와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서, 민족통일의 길로 수렴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들 세 작품이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정체성 확립이라는 지극히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의식을 실현하는 것이다.

Ⅱ-2. 서사구조

가. 근대적 의미소와 이분법적 사고

근대성의 중요특징은 이분법적 사고이다.

'근대'의 개념이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과학주의, 기계발명으로 인한 대량생산과 시장경제, 화폐경제, 시민계급의 형성을 포함한다면, 모더니즘은 귀족주의, 엘리트주의, 제국주의, 폐쇄주의, 예술지상주의로 대변된다.

이로 인해, 모더니즘은 개인/사회, 전통/개혁, 고유/보편, 민족주의/세계주의, 동양/서양, 진리/허위, 중심/주변, 남/여 사이의 '이분법적 사고'를 형성하였고, 이들간의 극단적인 우열관계는, 지배이데올로기의 타자 억압구조로서 이를 합리화, 합법화시키는 절대적 진리로 군림한다.

세 작품의 가장 뚜렷한 주제는 민족주의 사상이며, 이것은 극도의 이분법적 사고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근대적 이분법적 사고는 근대성을 내포하는 의미소간의 상호대립관계로 선명하게 제시된다.

「아리랑」의 경우 민족주의자/친일, 반민족주의자와 같은 선명한 대립구조로 형상화된다. 이분법의 속성상 그 대립구조는 양립도 화해도 불가능한 절대적 성격의 것이다. 대립구조의 한 축인 일제와 일제에 유착한 반민족 친일세력은 이른바 '절대의 적'(김윤식; 「근대문학의 시금석 - 단제의 경우」,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이다.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쳐넘겨야만 하는 대상이다.

근대적 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근대적 의미소의 상호대립관계는 근대성의 상징하는 개념들인 '노동, 지식, 권력, 소유'의 의미망과 이에 따른 '농민(소작인), 노동자와 봉건지주, 일제와 지식인' 등의 인물관계망이 핵심적인 의미소로 작용하는데, 이들이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분법적인 의미소를 따라 대립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의미소들을 장수익은 「아리랑의 서사 전개 방식」에서 그레

마스의 기호사각형에 따라 도식화하고 그 서사의 전개방식을 밝힌 바 있다.[11]

즉, 노동과 소유, 지식과 권력, 민족과 일제, 농민과 봉건지주는 양심과 이기,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근대적인 의미소와 대립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서사전개방향은 '노동, 소유'의 대립으로 인한 잠재적이고 소극적인 '불만'으로부터 '지식, 권력'이라는 표면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태백산맥>의 경우, 남과 북,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지주와 소작인, 관과 민 등의 근대적 의미소와 이분법적 대립으로 나타나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경우도, 남과 북,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강대국과 약소국, 우방과 적군, 미국과 소련, 한국과 일본 등의 근대적 의미소와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나. 근대적 서사구조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실현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적인 이분법적 사고와 그 우열관계를 허물고, 상호 보충관계로 확산되어, 탈엘리트주의, 탈제국주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으로 나타났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탈이데올로기시대, 반제국주의, 반마르크시즘 시대의 산물로서, 다양화, 다원성, 조화주의와 상대주의, 대중주의를 표방하며, 교묘한 지배이데올로기의 억압, 권력, 지식의 담합을 복합적으로 드러내어 해체(탈구축, 탈중심)시키는 것이다.

문학은 '정치적 무의식에 의해 제공된 무엇이며..... 이데올로기 및 사회적 문화적 실천과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면, '포스트콜로니얼한 텍스트'는 이러한 방법으로 문학텍스트를 다시 씀으로써, 실험적인 역사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잠재 텍스트 Sub-Text를 다시 쓴 것이고 재구성한 것'이다.[12] 그러므로 포스트콜로니얼한 텍스트는 근대적 의미소들과 이들의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실현하는 것이다.

---

11) 장수익 ; 아리랑의 서사전개방식, 『아리랑연구』, PP. 221~241.

12) 빌 애쉬크로프트 외, 이석호 역 ; 『포스트콜로니얼문학이론』, P.277.
제임슨의 분석은 **포스트콜로니얼한 사회가 지닌 <이분법적인 미학>을 동시다발적으로 조율하고 해체하는 내러티브 픽션**의 역할에 대해 포스트 콜로니얼한 논의를 이끌어가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분법적인 미학**이란 주변부와 중심부, 자아와 타자, 선과 악, 흑과 백이라는 소위 **포스트콜로니얼한 사회와 예술이 지닌 특징 중의 하나인 짝패 대립**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 작품을 꿰뚫고 있는 '민족주의'사상은 근대적 의미소와 근대적 사고의 틀인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함으로서, 진정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으로 확산된다.

<아리랑>의 경우 민족과 일제, 농민과 봉건지주, 노동과 소유, 지식과 권력이라는 근대적 의미소들과 이들의 이분법적 대립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라는 대표적인 이분법적 대립으로 수렴되고,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 방법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민족자존과 민족 정체성을 확립시켜가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보여준다. 민족해방에의 의지나 열망이 반제국주의로 구체화되었고,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려는 건강한 민족주의로 확산되어 갔다. <아리랑>의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민족주의이며, 근대적 제국주의에 의해 유린당한 민족주의를 극복하고서 뿌리내린 미래적인 건강한 민족주의이므로, 우리 민족의 자존과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실현이다. 조정래는 이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나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 넘고 있다. 무정부주의자 신채호를 정신적 사표로 삼거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통합을 표방한 신간회를 비중있게 다룬 것은 이데올로기보다 민족주의, 민족 최우선주의를 보여준 것이다.

<태백산맥>의 경우도 남과 북,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지주와 소작인, 관과 민 등의 근대적 의미소들 간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를 극복하고서, 분단된 민족의식의 총체성을 회복해 가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보여준다.

<태백산맥>은 여순반란사건에서부터 6.25전쟁까지의 격변하는 현실상황을 그리되, 분단의 비극적 체험과 실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분단극복의 역사적 전망을 추구하려한다. 자유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갈등과 그 실상을 각자의 신분적·계급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그것이 바로 민족의식의 분열을 가져와 분단의 단초가 되고 6.25전쟁으로 폭발한 과정을 보여준다.[13] 곧 <태백산맥>은 민족분단 상황의 문제성을 민족 내부적인 모순에서부터 찾음으로써, 국토통일과 민족의식의 총체성 회복 가능성을 열어주는 포스트콜로니얼니즘 작품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경우도, 남과 북,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강대국과 약소국, 한국과 일본, 미국과 소련 등의 근대적 의미소들의 철저한 이분법적

13) 권영민 ; 『「태백산맥」 다시 읽기』, PP.29~40.

대립구조를 통해, 한민족의 자존과 민족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작품이다. 즉, 냉전 체제 붕괴 이후 무의미해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대립과 미·소 대립, 남·북 대립 문제 등 근대적 의미소간의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하고, 민족차원에서 북한을 포용하고, 남북핵합작을 통해 총체적인 민족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또 우방과 적군이라는 대립적 의미를 버리고 민족차원의 화합을 통해 민족의 힘을 키우고, 한반도 주변안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민족자존의 길을 선택해 가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보여준다.

김진명의 경우, 지금까지 우리의 강력한 우방이요,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미국마저 불신하고, 냉전시대의 대립을 넘어서서 민족주의 차원에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포용하고, 남북이 협력하여 한반도를 핵무장시켜야 한다는 민족자존을 위한 민족주의 논리를 펴는데, 이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나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 넘어 우리 민족의 자존과 정체성을 확립시켜가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양상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포용 필요성과 핵개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주인공 권순범의 목소리를 통해 강하게 제시된다.[14]

Ⅱ-3. 주제의식

가. 근대성 극복으로서의 역사 다시 쓰기와 역사 다시 읽기

최근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이론들이 많고, 지금까지 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또는 약소국가로서 강대국에 유린되어 왔고, 분단 국가가 되어 버린 우리 민족으로서는 근대성에 대한 비판 없이는 포스트콜로니얼한 민족 정체성의 확립이 어렵다.

사실 포스트콜로니얼한 극복조차도 근대성에 대한 반성 (근대적 사유에 내재한 반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때[15], 우리 민족의 역사 다시 읽기 또

14) 「 ……또 **미국은 우리의 적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요, 우리 자신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우리 민족의 길을 찾아 나가야만 합니다.** ……(중략)……**우리가 어째서 북한을 미국과 일본의 시각대로만 봐야 합니까?** 물론 북한은 현재 우리의 가장 확실한 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위험에 철두철미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은 우리가 안아야만 하는 형제입니다** ……」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권1, PP. 276~277)

15) 황광수 ; 역사적 상상력과 변증법적 소설미학, 『아리랑 연구』, P.43.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성이란 한편으로는 이전 시대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깃

는 역사 다시 쓰기는 근대성 극복과 근대성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근대국가의 형성이 기본적으로 민족[16]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 민족을 주체로 한 민족사의 서술은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민족처럼 근대적 의미의 민족을 형성하기 이전에 다른 민족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토가 분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경우 민족사의 서술은 민족의 존립과도 깊이 관련될 수밖에 없다. 에티엔 발리바르의 말처럼, 모든 근대민족이 '식민지화의 산물'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식민지를 만들거나 식민지화를 당하는 처지'에 있었으며, '때로는 두 가지 다이기도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17], 식민지 경험 자체가 부끄러운 것일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도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을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식민지였던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판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 과거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반드시 민족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을 세계역사 속에 정체성을 지닌 포스트콜로니얼한 민족으로 바로 세울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타자화'시켜온 '식민지적 근대성'으로부터 벗어나 민족정체성을 회복하려면, '무조건 억압당하고 짓밟히고 타자화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타자화된 표면 아래서 꿈틀거리며 저항해 왔던 존재'로서의 우리를 다시 타자화시켜야 한다.[18] 식민지적 지배상황의 안도 바깥도 아닌 지점, 곧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쓰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역사를 다시 읽어'내며, 기억 속의 파편들로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을 통해서 만이, 우리 민족이 타자화된 과정을 거슬러 가서 억압을 드러내고 고발하는[19] 포스트콜로니얼니즘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들여 있는 유토피아적 기획들을 현실적 조건에 비판하는 <역사적 사유>에 기초해 있다. 인간의 사회적 삶의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형식을 통해 질서화하려는 <역사적 사유>는 역사 속에서 하나의 중심적인 힘을 그 주체로 상정하고 역사를 발전적 시각에서 보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16) 민족이란, 범박하게 정의하자면, 혈연과 지연 위에 성립하며 정치·경제·문화 등 생활의 공동과 역사적 운명의 공동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통의 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포괄적 기초집단이라 할 수 있다.

17) 황광수 ; 앞의 논문, 앞의 책, P.43.

18) 조혜정 ; 앞의 책, P.35.

19) 조혜정 ; 앞의 책, PP.30~31.

이러한 때에 나온 세 작품은 근대성 극복으로서의 '역사 다시 읽기' 또한 '역사 다시 쓰기'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조정래는 미래지향적인 '역사 다시 읽기'와 '역사 다시 쓰기'를 감행하고 있다. <태백산맥>과 <아리랑>의 경우 왜곡된 분단 체제의 성격을 밝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오랫동안 은폐·왜곡해 온 부당한 힘과 거짓된 역사서술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시대 역사를 바로 안다는 것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우리 민족의 끈질긴 저항과 투쟁에 의해 성취된 것이라는 주체적 사고의 확인이며, 언어와 문화 공동체의 역사를 몇천 년간 지속해 온 우리 민족에게 조상을 함께 하고 있다는 신념을 확산시켜,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작가가 재발견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를 전제로 하거나 상대로 한 개념이다. 침략이 있었으니 저항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힘에는 맞서야 한다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다. 두 작품을 통해 조정래는, 친일파를 비호함으로써 초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승만 이후 한국정권은 굴절과 파행으로 치달아, 민족의 정기나 정권의 정통성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일제시대에 이역만리로 쫓겨난 동포들에게 특별한 민족적·정치적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거의 방치상태로 내버려두었던 식민지 역사에 대해 분노한다.

실로 두 작품은 지구를 세 바퀴 이상 돌면서 취재한 객관적 자료를 날줄로 하고 우리 역사와 민족에 대한 천연적 사랑과 자긍심을 씨줄로 짜낸 '다시 쓰여진 참(眞)역사'이다.

> 소설 **「태백산맥」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를 흔히들 '민족사의 매몰시대' '현대사의 실종시대'라고 한다.** 그것은 곧 그 시대가 그만큼 치열했고 격랑이 심했으며, **분단사 속에서 또 그만큼 왜곡과 굴절이 심했음**을 의미한다. **그 시대의 진실과 참모습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되살리느냐가 바로 분단 극복이고 통일지향일 것이다.** 그 시대의 복원은 바로 오늘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작업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현장을 찾아다녔다. 소설은 단순히 상상력의 산물일 수만은 없으며, 엄연한 역사사실 앞에서 소설을 쓰는 자는 제멋대로일 수가 없는 것이다.
>
> (『태백산맥』, 제 4부, 작가의 말)

김진명의 경우도 '역사 다시 읽기'와 '역사 다시 쓰기'를 감행하고 있다. 냉전체제하에서 근대의 절대적 이데올로기 속에 묻혀버렸던 역사의 이면과 미

심쩍은 역사적 사실들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밝히고 재평가를 해간다. 이로써 박정희대통령 시해 사건의 비밀을, 강대국의 억압 속에 묻혀버렸던 박정희 대통령과 이휘소 박사의 핵개발 계획 추진 가능성과 관련시켜 드러내고, 시련으로 점철된 민족역사의 흐름속에서 핵개발을 통해 민족자존을 추구하려했던 박정희 전대통령의 업적을 재평가한다.

> 이것이 진정 한반도의 숙명이란 말인가? 그러나, 헤어날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에 침묵하고 있던 내게…… 이휘소! 바로 그였다. ……(중략)
>
> 그의 죽음이 박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나를 그의 죽음으로부터 등돌려 버릴 수 없게 만든 것은, **두 사람의 죽음과 함께 묻혀 버린 어떤 비밀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것은 재처리 시설이 없으면서도 1980년 8월 15일에 지하 핵실험을 하려 했던 박 대통령의 계획이 관계자의 증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미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지 않은가.**
>
> 박 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박 대통령이 자신의 한 팔로 믿었던 수하에 의해 궁정동의 총성으로 사라진 이후 **플루토늄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
>
> 수많은 의문과 더불어 차츰 나는 핵물리학자 이휘소에 매료되고 있었다.
>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작가의 말)

나아가서 김진명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간의 이권다툼과 세력판도 변화를 미리 읽어내고, 민족자존의 길로써 북한을 포용한다. 더불어 냉전체제의 산물인 이데올로기 대립의 허망함을 읽어내고서, 그동안 적대시해 왔던 북한의 김일성을 민족자존의 동반자로 재평가한다.

>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일본의 재무장을 빤히 보면서도 미국의 뜻에 따라 같은 민족인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비핵화선언이나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후세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 2권, PP.276~277)

결국 활짝 핀 '무궁화 꽃'은 역사 다시 읽기와 역사 다시 쓰기에 의해서 피어난 민족정체성과 민족 자존심의 회복이며,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실현이다.

나. 민족 정체성 확립과 역사잇기

이 세 작품의 의의는 민족주의와 민족정체성의 확립이라는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의식을 통해 '역사잇기'를 완수하는 데 있다. 철저한 작가의 민족주의

의식은 근대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묻혀버린 한민족 역사의 이면에 대해 철저한 역사 다시 읽기와 역사 다시 쓰기를 감행하고, 이에 의해 새롭게 부각된 민족정체성을 통해서, 역사의 이면에서 끊임없이 저항해왔던 포스트콜로니얼한 역사잇기는 완성되었다.

이는 조정래의 말처럼, 이들 세 작가의 창작목적은 '이데올로기 선택 이전에 민족전체가 소중히 다루어야 할 역사'가 있으므로, '이념적 대결구도를 보여 주고 있는 현실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민족사의 지평을 확장해 보는 작업'인 것이다.[20]

또, 일제식민지와 6.25사변과 분단상황으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동안 근대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은폐되어 왔던 문제들, 곧 친일파, 좌익세력,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살해배후, 북한포용 등에 관한 재평가 문제를 다루고, 억울한 민중의 진실과 투쟁의 역사를 시원하게 끄집어내어 다룸으로써, 민족자존과 민족정체성을 확립시켜준 한민족의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라 할 것이다.

이들 세 작품이 다루고 있는 시기는 우리 민족이 서구제국주의로부터 유린당하기 시작했던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시대인 지금 현재까지, 근대사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들이 모두 일제 식민지와 6.25사변과 분단, 미국의 신식민지적 상황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격동기를 다룸으로써, 일제 또는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벗어나 민족 주체성과 민족자존을 실현하려는 포스트콜로니얼즘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들 세 작품은 서로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의식을 통해 연계되어지며, 우리 민족의 포스트콜로니얼한 역사잇기는 실현된다.

먼저 <아리랑> 전체 4부 12권을 통해 한일합방직전부터 8.15광복까지, 1904년부터 1945년까지 41년간을 다루고 있는데, 일제에 의해 유린당하는 한반도의 운명을 다루지만, 온 민족이 맞서 끝내 독립을 쟁취하는 '민족혼'을 부각시킨다. 우리 민족의 끈질긴 저항정신을 재조명함으로써 일제 식민지시대를 우리민족의 저항의 역사로 보려는 작가의 포스트콜로니얼한 의지이다.[21]

<태백산맥>은 <아리랑>의 뒤를 이어, 전4부 10권에서, 해방 이후 여순반란사건 종결과정부터 6.25사변과 휴전(1953)까지를 다룬다. 민족분단을 고정화시킨 6.25사변을 작품내용의 절정단계에 배치하여 해방직후의 정치적, 사회

20) 권영민 ; 분단을 넘어서 통일문학을 향하여, 『태백산맥 연구』, P.273.
21) 기타 <아리랑>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역사관련 내용은 이 논문 <II -1-나>항을 참조 바람.

적 혼란과 민족내부의 계급적 모순이 어떻게 폭발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허망한 근대적인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에 희생당한 한반도의 역사와 억울한 민중의 진실을 드러낸다.[2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6공의 비핵화 선언과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현시점(1990년대 초)으로 다루면서 일제식민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신대와 마루타, 한국문화재 약탈 문제 등을 다루고 핵무기로 일본을 응징하는 미래의 가상시간(1999년)에까지 걸쳐, 한반도 안보와 민족자존, 민족정체성의 확립을 추구하는 방대한 시간의 역사 교과서이며, 살아있는 이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1960년대)하의 안보문제와 유신체제, 핵개발가능성과 박대통령 암살(1979. 12), 그 배후에 관련된 문제를 냉전체제하의 미·소 대립과 강대국 세력 갈등과 관련시켜 다루면서 한반도의 안보와 민족자존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금기시되어 있는 남북 핵합작과 북한 포용문제까지도 제시한다. 실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우리민족의 미래적 열망까지를 수렴하여 한일간의 독도문제, 일본재벌과의 시베리아 개발권 경쟁문제로 다루고 있는 방대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작품이다.

이렇게 분단 이후의 한반도 역사를 다루고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한민족의 통일과 민족자존, 그리고 민족 정체성의 확립을 추구하는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의식을 통해, <태백산맥><아리랑>과 더불어 '역사잇기'를 완수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 세 작품이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작품으로서 갖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22) <태백산맥> 제1부 '한의 모닥불'은 여순반란 직후부터 1948년 12월 빨치산부대가 읍 어지역을 해방구로 장악하는 과정을 그리고, 지주와 소작농의 갈등이 좌·우익의 대립갈등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2부 '민중의 불꽃'은 1949년 1월 소작농 봉기를 전후로 하여 여순사건 이후의 10개월을 다르고 있으며,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농민의 좌절과 분노를 보여준다. 제3부는 1949년 10월부터 1950년 12월까지의 6.25사변과 빨치산을 비롯한 이 전쟁의 성격을 자세히 다루는데, 남북의 상황변화와 미군개입들이 그려진다. 제4부는 1950년 12월부터 1953년 7월 휴전협정 직후까지 지리산의 빨치산 투쟁을 주로 다루는데, 남로당 문제와 거제 포로수용소 문제와 더불어 빨치산을 허망한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민주의 희생으로 긍정적 측면에서 드러낸다.

Ⅲ.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작품의 의의와 한국문학의 전망

사이드의 말대로, 포스트콜로니얼한 지구촌은, 서구인에게 절대적인 중심의식과 우월의식을 심어주었던 '근원'을 해체하고, 비서구인으로서의 자유롭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나아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통해 '통합과 공존'을 위한 '열린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듯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 문학도 새로운 개인성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근대성', 즉 포스트콜로니얼한 문학담론으로 추구되어 나가야 한다. 현해탄 콤플렉스나 서양 콤플렉스와 같은 서구지향적 근대화가 동질화시켜온 우리 문학담론을 이제는 차별화 또는 재타자화 시킴으로써, 문화적 자생력이 강한 문학담론으로 형성해 가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거대한 외세에 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나 이전의 한국적인 것으로 회귀하려는 '감상적 민족주의'와는 다른 생산적인 '민족주의 담론' 이어야 한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문학에 새롭게 부각된 또하나의 경향으로, 정치적인 민족자주성 확립과 역사 다시 읽기를 통한 민족정체성 확립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쏟아져 나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1993),<태백산맥>(1993)과 <아리랑>(1994) 등의 장편 또는 역사대하소설류의 열풍이 그것이다. 최근 이들 작품을 다각도로 조명한 비평서 『아리랑 연구』(1996)과 『태백산맥 다시 읽기』(1996)들이 출간되었으나, 이 작품들을 정작 포스트콜로니얼한 문학담론적 시각에서 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먼저 이 점에 본 문학연구의 비평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이 세 작품이 수세기에 걸쳐 지속된 식민지적 근대성과 민족분단으로부터 벗어나 포스트콜로니얼한 문학담론으로 이행하는 전형적인 작품임을 밝히려 한다. 즉, 이들 작품이 우리사회와 문학담론 속에 내재한 식민지성을 인식하고, 질곡의 역사를 거슬러가서 다시 읽고 다시 쓰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서구제국주의에 의해 주변화/타자화된 과정을 비판, 고발하고, 이를 통해 다시 중심부/지배화된 문학담론에서 벗어나, 우리 문학의 자생력과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이 세 작품이 국가간 또는 남북간, 계급간의 노동, 지식, 소유, 권

력의 근대적 의미소를 지니고 있으며, 서구제국주의의 편견인 자유/종속, 가진자/못가진자, 가해자/피해자 중심부/주변부, 자기화/타자화 등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근대적인 의미소들간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를 통해 이들 작품은 식민지적 근대성과 민족분단의 극복, 민족정체성과 민족자주성의 확립이라는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의식으로 확대시켜가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포스트콜로니얼한 서사구조와 주제의식은 결국 민족주의에 입각한 작가의식과 투철한 역사인식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철저한 작가의 민족주의 의식은 작품제목과 제재의 선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고, 근대적 사고에 의해 묻혀버린 한민족 역사에 대해 철저한 역사 다시 읽기와 역사 다시 쓰기를 감행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이에 의해 새롭게 부각된 민족정체성을 통해서 역사의 이면에서 끊임없이 저항해 왔던 포스트콜로니얼한 역사잇기를 완성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들 세 작품이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문학 담론으로서의 특성과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에서 밝혔다.

이 세 작품은 첫째 모두 투철한 민족주의 우선의 작가의식과 역사인식에 바탕하여 쓰여졌으며, 둘째 근대적인 의미소와 이분법적 서사구조를 통하여 근대성을 극복하고 확산되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째 철저한 역사 다시 읽기와 역사 다시 쓰기를 통하여 민족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주제의식을 실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제 식민지와 광복, 6.25전쟁과 분단, 그리고 미국의 신식민지 상황에까지 이어지는 한민족의 포스트콜로니얼한 역사잇기를 완성하였다.

이런 점들로 볼 때, 이들 작품은 불우하고 우울했던 근대사를 넘어 포스트콜로니얼한 문학담론으로 우뚝 자리매김하였고, 아울러 우리 문학이 자생력 있는 하나의 지방장르로 우뚝 설 전망과 역량까지 보여주었다고 본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우리 문단에도 포스트콜로니얼한 문학담론에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우리 국가와 민족 전체에 '우리 것을 다시 보는 시각'으로서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열풍을 일으켜, 민족정체성 확립에 큰 거점이 되리라 믿는다. 포스트콜로니얼한 문학담론을 통해 문화적 자생력이 확립된 우리 문학담론은, 세계문학 속의 한 지방장르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A Study of Post-Colonialism in Korean Contemporary Novels:

focusing on 〈Arirang〉, 〈Taebaek Mountains〉 and 〈Blooming of the Rose of Sharon〉

Lee Hae-N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st-colonialism shown in the Korean literary discourse and to survey the national identity and its prospect. Why I am interested in this subject is as follows : First, the desire for the post-colonial literary discourse and the effort for the national identity are growing in the world. Second, the Koreans are direct victims of Japanese-colonial period, the Korean war and the segregation.

The tendency of post-colonialism in the Korean literature is absolutely found in the novels and saga-novels, for example, <Taebaek Mountains(1993)>, <Arirang(1994)>, and <Blooming of the Rose of Sharon(1993)>. These works try to establish nationalism and the national identity through the nuclear independence, to overcome colonial modernism and to recover the unification through re-reading and re-writing of Korean history.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spects regarding that these novels have the mean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st-colonialism. First, these are based on the spirit of nationalist-writers and their historical consciousness. Second,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se novels show the divisional opposition of modern ideologeme, through which these works can overcome modernism. Third, the theme of national identity is established by re-reading and re-writing Korean history.

In conclusion, these novels are the representative post-colonial - Korean literary works which are recovered from the dark Korean modern history.